

알렉스 프레거 : Western Mechanics
2024. 5. 9 - 6. 22
리만머핀 서울



알렉스 프레거(b.1979)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이자 포토그래퍼로,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작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 이탈리아 밀라노 폰타지오네 소피니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고, 뉴욕 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알렉스 프레거

수석 디렉터 Senior Director 손엠마 Emma Son



Alex Prager <California, Too> 2024 archival pigment print 121.9x121.9cm
Courtesy Alex Prager Studio and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Alex Prager <Western Mechanics> 2024 archival pigment print 106.7x125.7cm
Courtesy Alex Prager Studio and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오는 5월 리만머핀 서울에서 열리는 알렉스 프레거 개인전 《Western Mechanics》는 2022년 롯데뮤지엄 전시 이후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작가의 개인전이다. 롯데뮤지엄 전시가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망라하는 작가의 사진·영상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 회고전의 형태였다면, 그의 2024년 신작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현재 작가가 몰두하는 주제와 작업적 영감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그곳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프레거는 ‘할리우드 감성’이 느껴지는 실제와 허구 사이의 장면을 연출한다. 클래식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특유의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미장센, 그 안에서 맥락 없이 펼쳐지는 모호한 사건 등이 그의 작업적 특징이다. 현대 사회의 풍경과 군중 이미지, 집단경험과 개인의 내적 불안을 탐구해 온 작가의 이번 신작은 무대 속 서사를 관객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 영화 같은 순간으로 또 한 번 관객을 초대할 예정이다. 작가는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패션 등 대중문화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시 감상에 앞서 브래드 피트, 게리 올드만, 라이언 고슬링 등이 출연한 2012년 에미상 수상작 <Touch of Evil>(2011)을 비롯해 작가가 연출한 여러 단편 영화를 시청해 보기를 권한다. 최근 작가가 까르띠에와 함께 제작한 엘르 패닝 주연 ‘그랑 드 카페(Grain de Café)’ 컬렉션 화보 영상에서도 작가 특유의 미장센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남동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광장의 거대한 벽면·천장 설치 작업도 그의 작품. □